

■ 심의총평

연극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9년도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연극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서류) : 2019년 8월 23일(금), 10:00~20:00 / 이음센터 세미나실 1
 - 2차(인터뷰) : 2019년 9월 6일(금), 09:30~20:00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2019년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은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다년간 지원을 통해 민간분야 창작과 제작 역량 향상 및 이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최대 3년에 이르는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여 수준 높은 작품 제작 역량 축적과 자율적인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다년간 체계적인 개발과정이 필요한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가 해당되며, 더 구체적으로는 다년간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발되는 과정 중심의 창작프로젝트가 해당된다. 즉, 최대 3개년 동안 창작프로젝트에 대한 리서치, 개발, 제작, 유통 등 전 과정을 지원하면서 단체의 자율적인 중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공연예술과 관련된 지원 사업에서 다년 지원제도는 공연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연극분야에 지원신청한 단체가 총 226개라는 사실은 이 사업의 중요성과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반증한다. 심의위원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였고, 그 중요성에 비례하는 엄중함과 공정함,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심의에 임했다. 심의는 1차 서류 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로 진행되었고, 심의과정은 전수검토제가 적용되었다. 심의위원 전원이 지원 서류를 사전에 제공받았고, 지원 서류를 검토한 후 검토 의견을 심의 기준 별로 작성하여 심의 당일에 제출하였다. 전수검토제는 신청단체가 많고 심사기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조건 속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심의기준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이미 사업공모 안내에서 공지했던 바, 첫 번째는 사업계획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의 충실성, 예산의 타당성 및 공정성을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였고 심의 기준 중 가장 배점이 컸다. 사업의 충실성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성, 비전과 전략, 연도별 활동 계획의 구체적 수립이 충실한가의 여부를 판단하였고, 예산의 타당성 및 공정성에서는 예산계획이 사업 규모에 적합한지, 참여 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기준이 책정되었는지, 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심의 내용으로 삼았다.

두 번째 심의기준은 사업 기대 효과에 해당하는데, 각각 사업의 성장가능성과 사업의 파급효과로 구분하였다. 사업의 성장가능성은 프로젝트의 예술적 성취 가능성, 기존 프로젝트와의 변별성을 주된 심의 내용으로 하였고, 사업의 파급효과에서는 예술계에 미칠 영향과 우수 사례로서의 가능성을 주요하게 살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행 단체 역량에 대한 부분으로, 단체의 지속 가능성과 인력 구

성의 적절성을 세부 영역으로 구분했다. 단체의 지속 가능성은 단체 활동과 공연 실적이 활발한지, 운영이 체계적이고 공정한가를 살폈고, 인력 구성의 적절성은 사업계획에 맞는 인력구성인지,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심의하였다. 특히 세 번째 항목인 단체 역량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3년간 지원을 통해 일정 정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안정적인 조직 구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심의기준은 1차 서류 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1차 서류 심의에서는 226개의 지원단체 중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2개 단체와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1개 단체, 총 3개 단체를 제외한 223개의 단체를 대상으로 위의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인 32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2차 인터뷰 심의는 32개 단체가 제출한 서류와 심의위원들의 전수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단체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프로젝트의 목표와 구체성을 확인하였고, 인터뷰 결과를 놓고 심의위원들의 신중하고 진지한 토론, 그리고 개별 평가를 거쳐 23개의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심의기준을 적용함에도 상세한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몇 가지 합의가 필요했다. 우선 창작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신작 창작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했다. 단체에 따라 신작 창작에만 집중하기도 하고, 신작 개발 없이 기존 작품의 개작 혹은 재창작에 주력하기도 했다. 중장기라는 시간 동안 단체에게 필요한 것이 안정적인 레퍼토리 구축이라는 것을 내세운 단체가 많았던 것도 이유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과정에 집중한 것이기 때문에 신작 창작과 기존 작품 재개발에 차등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때 중요한 것은 이전 공연과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별성과 발전된 가능성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였다.

둘째, 중장기 지원 기간 동안 발표되는 작품 편수에 대해서 차등 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의 공연에만 집중하여 지원 기간 동안 개발에서 발표까지의 과정을 거치는 프로젝트도 많았고, 지원 기간 동안 1년에 3편 이상의 많은 공연을 발표하는 프로젝트도 많았다. 중요한 것은 한 편의 작품인 경우 이 작품이 왜 3년이라는 시간과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명백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고, 많은 공연의 발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의 목적이 분명해야 했다. 공연 편수와 관련된 심의에서 기본 전제가 된 것은 이 지원 사업이 작품의 창작지원이 아니라 단체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 제작 환경 기반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이었다. 이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면서 한 편이든 여러 편이든 작품 개발과 관련한 사항이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는 항상 심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셋째, 다른 지원사업의 선정 프로젝트와 중장기 지원사업의 프로젝트가 완벽히 중복되는 단체는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단체 대표와의 2차 인터뷰 심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성격이 다른 여러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경우 중장기 지원 사업을 포함해 그 모든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논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단체 역량에 대한 확인은 그 심의기준이 되었고, 2차 인터뷰 심의에서 구체적인 질문과 단체 대표의 답변을 통해 수행

가능성을 판단했다.

그 외에, 과정에 대한 지원이라는 중장기 지원사업의 목적을 전제하면서, 개발 과정 후 발표되는 작품을 실질적으로 설명하지 못해도 과정의 타당성과 합리성, 그리고 단체의 역량 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면 그것을 존중하기로 했다. 또한 프로젝트의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나 장기지원의 명분만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개발을 통한 단체 역량 강화보다는 유통과 판매에 집중한 경우, 작품 개발의 내실을 다지지 않은 채 해외진출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단체지원이 아닌 개인 지원으로 이해될 경우, 단체에서 계획하는 축제의 지원금 신청인 경우 등은 차등 평가하였다.

2019년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에 지원한 단체의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책정된 예산이 달랐고 단체별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 선정 단체는 연극분야에 배정된 전체예산에 따라 결정하게 되었다. 심의 결과 평가된 단체의 순위에 따라 2019년 지원신청액을 기준으로 신청예산을 합산하면서 연극분야에 배정된 예산을 전부 가용할 수 있는 단체가 몇 단체인가를 확인하였고, 선정 경계에 있는 단체들의 총점을 기준으로 최종 23개 선정 단체를 확정하게 되었다.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순위에 따라 지원예산을 차등 분배하면서 예산분배까지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분배된 예산은 2019년도 지원액만 결정된 것이고, 연도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규모의 조정이 있음은 중요한 참고사항이다.

심의를 마무리하며 중장기 지원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새삼 확인했다. 연극분야 226개의 유망과 중견 단체가 지원했다는 것은 양적으로만 봐도 이 사업이 연극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신청 단체들이 제출한 서류들의 다양한 프로젝트 속에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단체들의 열망과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선정된 단체들은 그 열망과 바람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단체의 향후 활동방향성 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3년이라는 지원 기간에 적합하도록 프로젝트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설계하였고, 그렇게 진행된 프로젝트가 곧 단체의 정체성과 연결되었으며, 중장기 지원 사업 이후의 향방까지도 가늠해볼 수 있을 만큼 프로젝트의 내용과 구성이 명확하고 선명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안정적인 제작 환경이 갖추어질 때 단체가 목표한 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역시 체계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유망 단체는 단체의 정체성 정립과 제작 기반 형성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면 중견 단체는 안정적인 제작 환경의 확보를 위해 단체의 대표적 레퍼토리의 구축과 구성원들의 전문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것이 서로 다른 부분이지만, 중장기 지원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가는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사업에 대한 열망과 바람이 구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단체가 많았다는 점이다. 단기간의 지원에 익숙해진 연극 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중장기의 긴 시간이 필요한 기획을 해보지 못한 얕은 경험이 드러났고, 단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단체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제시되지 않았다. 신청 서류는 모두 절실하고 간절했지만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혹은 얼마나 깊은 고민과 성찰 속에서 절실함을 구체화하고 있는가는 단체 별로 차이가 매우 컸다.

시의성 강한 주제들로 작품들을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을 만큼 모호하게 설명한 단체들도 일부 있었고, 그것이 단체의 이전과 이후 작업에서 어떤 의미이며 단체의 역량강화와 안정적 운영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되면 단체가 보여준 관심은 대체적으로 소재적인 측면에만 그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형식적 개발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도 많았는데, 그러한 형식 개발의 유효함과 새로움, 그리고 단체가 지금까지 해온 수행성의 내용들에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많은 단체들의 프로젝트에서 주로 언급된 것이 레퍼토리의 구축과 해외진출이었다. 레퍼토리의 구축이 단체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에 적극 기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레퍼토리로 선정된 작품들이 과연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만큼의 지원과 재개발 기간이 왜 필요한 것인지는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다. 해외진출 역시 에딘버러를 필두로 유럽과 남미, 아시아 등 세계 공연예술계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그러한 해외진출이 단체에 왜 필요하며, 그 지역 혹은 지역 축제의 공연예술 특징이 단체와 어떻게 부합하는가 하는 설명이 부족한 단체들이 있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은 혹여 이런 요소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가를 판단해보길 바라며 향후 지원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더 선명하게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선정된 단체들은 장기간의 안정적 제작 환경이 만들어진 만큼 자신들이 제시한 계획들을 차근차근 온전히 실행해내기를 바란다. 이 사업의 지속 여부는 선정 단체의 결과물이 보여주는 풍성함과 다양함, 예술적 완성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단체 활동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환경을 갖춘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연극계는 물론 공연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라는 바이다.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연극분야 심의위원 일동

■ 심의결과

단체명 가나다 순 (단위 : 원)

연번	단체명	대표자	지원신청사업명	지원결정액
1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민준호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_ 간다GO	150,000,000
2	극단 난희	김명화	극단 난희 중장기 창작프로젝트	100,000,000
3	극단 달팽이주파수	이원재	극단 달팽이주파수 회색인간 4부작	78,000,000
4	극단 돌파구	전인철	SF는 인류 종말에 반대합니다	120,000,000
5	극단 떼아뜨르 봄날	이수인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연극)	100,000,000
6	극단 백수광부	하동기	세기를 넘어, 세계를 향해 - 극단 백수광부 25주년 기념 프로젝트	170,000,000
7	극단 신세계	김수정	신세계의 신세계	125,000,000
8	극단골목길	이호열	동시대 연극을 찾아서 : 한국적 서사의 탐구	170,000,000
9	극단노뜰	원영오	극단 노뜰의 전쟁연작 시리즈	130,000,000
10	극단놀땅	최진아	당신은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000,000
11	극단미인	김수희	근현대 공산주의 및 노동 운동사의 여성주의와 연극	130,000,000
12	극단복새통	남인우	2019년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자폐성 발달장애인 대상 릴렉스드 연극 공연(relaxed performance) 개발	90,000,000
13	극단풍경	박정희	이머시브 아카이브 씨어터(작가, 작품이 되다 1,2,3)/옵니버스 작가전(이방인 보고서1,2)	100,000,000
14	래빗홀씨어터	윤혜숙	Common Sense : 감각을 잇는 극장	36,000,000
15	마방진	고강민	오래가는 레퍼토리, 오래가는 마방진	180,000,000
16	문화공작소상상 마루	엄동열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	130,000,000
17	사다리움직임연 구소	임도완	사다리움직임연구소의 템페스트	100,000,000
18	상상만발극장	박해성	믿음의기원 연작레퍼토리	47,000,000
19	양손프로젝트	양종욱	1인극 프로젝트	30,000,000
20	유목민	손정우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130,000,000
21	창작공동체아르 케	김승철	프로젝트 '화전(火田)', 역사의 거울에 비추어 본 동시대 본질 탐구	34,000,000
22	창작집단LAS	이기쁨	고전 재창작 프로젝트	130,000,000
23	코너스톤	이철희	충남시리즈 프로젝트	71,000,000